

## 시장

**John C. Liu (D)**

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뉴욕 이야기와 비슷합니다.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요. 저의 가족은 제가 5 살 때 대만에서 이곳으로 이민 왔습니다. 수많은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기회를 찾아 이민을 왔지요. 뉴욕이 우리와 한 신성한 약속, 이곳에 와 열심히 일하고 크게 꿈을 꾸면 이를 이루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저의 부모님은 믿으셨습니다. 저도 아직 이 약속을 믿고, 이것이 바로 제가 시장에 출마한 이유입니다. 저는 이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할 것입니다. 제가 시의원으로도 뉴욕시 감사관으로도 했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. 시청이 있어버린 사람들을, 일하며 생계를 이끌어가는 어머니들, 이민자 가장, 소규모 사업가,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, 교사, 노동자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든 뉴욕커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. 물론 힘 있는 자들에게 맞서면 그들은 우리를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. 그들은 MTA 가 두 개의 장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지 않으니까요. 그들은 우리가 시장이 승인한 여러 프로젝트가 뉴욕시를 거의 강탈하다시피 하는 것을 알아차려 시 주민들을 위해 30 억 달러 이상을 회수하게 하는 것도 싫을 테지요. 또 그들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반대할 것이 틀림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. 뉴욕시는 그들과 우리가 나뉜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통합된 도시여야 합니다.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누리는 도시여야 합니다. 단지 자신의 인종 때문에 경찰에게 검문 몸수색(Stop and Frisk)을 받지 않는 도시, 모든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는 도시 그리고 시장이 주민 1%가 아닌 100%를 대표하는 도시여야 합니다. 뉴욕시는 이미 우리와 한 약속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만들 것입니다.

*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.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*